

한화갑 “출마지역 당에 백지위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통합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자신의 총선 출마지역을 당에 백지위임한다고 밝힌 데 따라 ‘리틀DJ’ 한화갑 전 대표와 ‘DJ의 복심(腹心)’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간의 목표결투는 벌어지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광주CBS의 매거진 대담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의 출마지역은 야당을 살리는 의미에서 당에 백지위임하겠다”고 밝혀 목표 출마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갑 전 대표는 대선패배는 호남표로 당선된 노태우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통합민주당이 출범했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결집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특히 “강한 야당을 위

박지원과 ‘DJ 목장의 결투’ 불발될듯 일부에선 韓 전 대표 ‘비례대표설’도

해 수도권이든 목포든 출마지역의 결정을 전적으로 당에 백지위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물갈이론과 비리정치인 공천배제 여론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정치를 구분해 큰 인물을 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물갈이론을 일축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이 한화갑 전 대표,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역인 이상열 의원이 링위에 올라와있는 목포공천을 어떻게 결론 낼 것인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통합민주당의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어느 경우에도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원칙에 따라 공천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

그러나 DJ의 복심(腹心)이자 목포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박 전실장을 공천에서 제외하기란 지도부로서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해신의 구실이라는 사법처리 경력도 ‘대북송금’ 관련이라 일반 비리사범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이에 대해 18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 학생독립운

동기념관을 방문한 박 전 실장은 “민주당의 당론은 대북송금 특검이 잘못 된 것이라는 것이다”며 “당당히 목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 전대표와 박 전실장이 ‘DJ목장의 결투’를 벌이는 건 부담이 큰 만큼 한 전대표를 비례대표 쪽으로 교통정리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동고동에서 한 전 대표에 비례대표를 권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이 과연 한 전 대표에 비례대표를 보장할 것인지에 미지수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김홍업 의원에 공천을 주고 여기에 한 전 대표에게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배정한다면 당장 ‘호남당’ 내지 ‘DJ 당’이라는 집중 포화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장병완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 필요”

4·9 총선 현장

송두영, 21일 복합 선거사무소 개소



○송두영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8일, 선거구 내 복지시설과 상가 등을 돌며 표밭갈이를 본격화. 장 후보는 두암동 노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오히려 수령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다짐.



○송두영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오는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할 예정. 송 후보는 지역발전 방향과 정치철학 및 출마의 변을 밝힌 뒤 지역민들과의 접촉을 늘리면서 표밭갈이에 나설 계획.

최경주 “한나라당 견제할 야당 되겠다”



○최경주 광주 북을 예비후보는 18일 통합민주당의 출범과 관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 최 후보는 “빠를 짚는 쇠신 노력을 통해 광주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

박지원 “DJ 목포 방문, 정치적 목적 없다”



○박지원 목포 예비후보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포 방문에 ‘정치적 논란’을 제기한 일부 후보들에 대해 “DJ철학을 계승한 후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비판.

박 후보는 또 “이순신 장군의 중요 전적지인 전남을 놔두고 경남 거제나 충무를 가라고 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며 유감을 표시.

정용화, 기아차 방문, 현장 의견 청취



○정용화 한나라당 광주 서갑 예비후보는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 공장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 정 후보는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민·관·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타 지역의 많은 부품 업체들이 광주로 옮겨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지지를 당부.

강운태 “송암산단 해제, 개발 나설 때”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8일 “송암산단을 해제해 지역 개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강 후보는 “12만평에 달하는 송암산단의 70여개 입주업체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미만”이라며 “국회에 입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 해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

장성민, 통합민주 입당 “고흥 출마”



○국민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종합상황실장과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씨가 18일 통합민주당에 입당, 총선 행보에 돌입. 고흡인 고흡에서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장 전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탄생함에 따라 ‘복합’에 당 재건과 민주개혁진영 부활에 매진할 것”을 천명.

임현모 “밀실·낙하산 공천 용납 못해”



○임현모 광주 북갑 예비후보는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한 공천을 실시할 것을 촉구. 임 후보는 “과거처럼 밀실·낙하산 공천이 진행된다면 통합민주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는 없을 것”이라며 “공천심사위원회는 계파·지역·학연·혈연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며, 중앙당은 엄정하고 공정한 경선을 위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고광진 “통합민주 입당 총선 출마할 것”



○고광진 전 대한석유협회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큰 담양·곡성·구례 지역구에 통합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 곡성 출신인 고 전 회장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평화민주당 정책연구실장,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신당 중앙선대위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역임.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박지을기자 dok2000@

이형석, 광주 북을 선거사무소 개소



○이형석 광주 북을 예비후보는 1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할 일은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표심 공략을 본격화. 이 후보는 또 많은 지지자들이 참석, 세를 과시하는 기존 개소식과 달리 지역 현안 및 정책 공약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관심.



통합민주당 박석천 대표가 18일 신당-민주당 통합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민주 공천심사위 윤곽

박재승씨 등 내·외부인사 12명

통합민주당이 조만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인 가운데 공심위에 참여할 당·내외 인사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공심위는 박재승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 7명, 내부인사 5명(대통합민주당 출신 2명, 민주당 출신 3명)으로 구성되며, 19~24일 총선 후보자 공모를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인 공천심사를 시작한다.

박 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외부인사의 경우 교수, 재야 역사학자, 중소기업 대표, 의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외부인사는 정장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해구 전 단국대 교수, 양길승 녹색병원 원장, 이이화 고구려역사문화재단 상임공동대표, 백승현 민변회장, 김 근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인사는 아직 수락의사를 밝히지 않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당내 인사 5명의 경우, 신당 출신 2명 뒤으로는 신계륜 사무총장과 종진 의원 1명이 포함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신 사무총장이 최근 공심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김영주 사무부총장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역구 바꾸고 지방의원·시민단체 동원 勢 과시

총선 예비후보들 ‘공천따기’ 안간힘

18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선거구를 바꾸거나, 시·구의원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지세력으로 끌어들이 세를 과시하는 등 공천 따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광주 서구 갑 지역구에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갈이에 나선 전 장흥호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행정관은 최근 출마 예정 지역구를 광주 서구 을로 바꿨다. 장 후보는 이와 관련,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서구 을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구를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또 “재선 이상 의원 수도권 동원령에 따른 지역구 이전”이라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어느 지역의 발전에 더 기여할 수 있는지에 따른 판단일 뿐, 공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하지만 앞으로도 선거구를 바꾸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광주·전남지역 일부 선거구의 경우, 다른 선거구에 등록했던 예비후보들이 ‘공천 가능성’을 보고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통합민주당 차원에서 특정 지역구에 물러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다른 지역구로 내보내는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예비 후보들은 또 선거구 시·군·구의원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기초·광역의원들은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다, 실제 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을 관리하고 있어서다.

김동식·김월출·송재선·조광항 광주시의회 의원과 오양섭 서구의회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11명 지방의원들은 18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서구 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통합 민주당 유종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 황호용·이부남 의원 등 강진·완도 출신 전남도의원 5명도 통합민주당의 김영록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손재홍 광주시의회 의원과 조영복 동구의회 의장 등은 박주선 후보, 양해령 광주시의회 의원과 박종근 동구의회 부의장 등은 양형일 의원, 그리고 유재신 광주시의회 의원과 이준열 광산구의회 부의장 등은 이용섭 전 건교부 장관 지지를 선언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Includes a photo of a runner, a map of the route, and a list of sponsors like SK and Lotte.